

제1 교시

국어 영역

[1 ~ 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대화의 원리에 대해 배운 것 기억하시나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원활하게 대화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대화의 원리인데요, 저는 대화 참여자들이 상대의 체면을 고려하면서 대화해야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상대의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고맥락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답을 듣고) 아는 분이 많지 않네요. 오늘은 고맥락 문화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문화인류학자 홀에 따르면 의사소통 과정에서 대화 참여자가 주고받는 언어 자체에 나타난 명시적 의미보다 비언어적 표현이나 상황 등에 더 의존하는 문화를 고맥락 문화, 반대로 명시적 의미에 더 의존하는 문화를 저맥락 문화라고 합니다. 고맥락 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 상황 중심적이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여 손님을 초대하고서 “차린 것은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맥락 문화의 청자는 자신을 반기는 표정과 초대받은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화자의 의도를 이해하기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반면 저맥락 문화의 청자라면 ‘차린 것은 없다’라는 말에 주목해 언어적 표현에 드러난 명시적 의미와 대화 상황이 일치하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관계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맥락 문화에서는 화자가 청자와의 관계를 고려한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화자가 청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종결 표현을 원래 의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문을 닫아 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청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혹시 춥지 않아?” 또는 “창문 좀 닫아 줄 수 있어?”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청자에게 명령문의 형식이 아니라 의문문의 형식으로 종결 표현을 써서 부담을 낮추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맥락 문화에서는 대화와 관련된 사람들을 고려해 ㉠ 공손성을 드러내는 높임 표현도 발달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소통 방식에 반영된 고맥락 문화의 특징을 살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일상 대화 속 고맥락 문화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 중간중간에 내용을 요약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청중의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③ 발표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④ 발표 내용을 청중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상반된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 ⑤ 발표 중간에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과 관련 있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다음은 위 발표를 하기 위해 학생이 세운 계획이다.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도입]

-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환기하고, 발표의 화제가 ‘고맥락 문화’임을 소개해야겠어. ①

[전개]

- ‘고맥락 문화’의 개념을 ‘저맥락 문화’와 비교하여 제시해야겠어. ②
- ‘고맥락 문화’의 상황 중심적인 특징을 예를 중심으로 설명해야겠어. ③
- ‘고맥락 문화’의 관계 중심적인 특징을 장단점을 중심으로 분석해야겠어. ④

[정리]

- 발표 주제를 언급하고, ‘고맥락 문화’와 관련하여 청중에게 기대하는 바를 언급해야겠어. ⑤

3. <보기>는 위 발표 후 이어진 수업 내용의 일부이다. ㉠과 관련해 [A]에 들어갈 학생의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발표 잘 들었어요. 발표 내용 중 공손성을 드러내기 위한 높임 표현에 대해 궁금해할 것 같네요. 우리말의 높임 표현은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이는 주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이는 객체 높임,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상대 높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러한 높임 표현은 선어말 어미, 종결 어미, 조사, 특수 어휘 등에 의해 실현됩니다. 아래의 문장들에서 높임 표현을 실현하여 공손성이 드러난 양상을 설명해 볼까요?

- ㉠ (언니가 동생에게) 엄마는 지금 어디 가셨어?
- ㉡ (동생이 형에게) 할머니께서 전화해 달라고 하셨어.
- ㉢ (학생이 선생님에게) 수업 내용에 대해 여쭙봐도 될까요?
- ㉣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내일 할머니를 모시러 오겠습니다.
- ㉤ (아들이 어머니에게) 선생님께서 이것을 어머니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학 생: _____ [A] _____

- ① ㉠은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주체인 엄마를 높여 공손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 ② ㉡는 주격 조사와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머니를 높여 공손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 ③ ㉢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객체인 선생님을 높여 공손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 ④ ㉣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청자인 할아버지를 높여 공손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 ⑤ ㉤는 주격 조사와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주체인 선생님을 높여 공손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4~6] 다음은 수업 중 진행한 ‘모의 협상’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정한 역할에 따라 생태 탐방로 조성을 주제로 한 모의 협상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학교 인근에 있는 ○○마을과 △△마을의 대표가 되어 협상에 참여하게 됩니다. 현재 마을 캠핑장을 운영하는 △△마을은 새롭게 설치할 생태 탐방로를 ○○마을까지 연결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을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학생 1: 우리 마을은 항상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 습지에 탐방객이 대거 유입될 경우 습지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 위기종인 남생이와 부엽 식물인 순채의 생태 환경이 나빠질 것이 우려됩니다. 이런 이유로 탐방로는 △△마을 구간 내에서만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자: ○○마을은 생태계 보호를 이유로 탐방로가 ○○마을까지 이어지는 것에 반대하시는군요. 이번엔 △△마을의 입장을 들어 보겠습니다.

학생 2: 저희도 환경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마을의 목표에 동의합니다. 탐방로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생태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우려하시는 바를 고려해 ○○마을까지 탐방로를 조성할 때 남생이의 주요 산란지는 피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의 생태계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마을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수익 [A]의 일부를 ○○마을에 기부하겠습니다.

학생 1: 우리 마을 생태계 보호를 위한 방안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탐방객으로 인한 소음 발생 및 쓰레기 투기 등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제안하신 대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혹시 △△마을 측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만한 방안을 준비하셨나요?

학생 2: 네. 생태 교육을 받은 해설사를 양성하여 탐방객의 습지 탐방이 예의와 배려가 있는 생태 탐방 문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1: 그럼 우리 마을 주민들도 해설사로 참여하겠습니다. 그러한 생태 탐방 문화가 조성된다면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줄고 그 문화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탐방로 조성을 위해 설치될 인공 구조물이 습지의 생태적 균형에 영향을 주게 될까 여전히 우려됩니다. 또한 특정 시기에 탐방객이 집중될 경우 습지 생태계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생태 관광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대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학생 2: 습지 탐방로의 경우, [가]

사회자: ○○마을에서 추가로 제시하신 문제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셨네요. 다음 협상에서는 해설사 양성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위 협상에 나타난 ‘사회자’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협상의 주제를 제시하며 협상을 시작한다.
- ② 협상자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다.
- ③ 협상자들의 발언 순서를 지정하고 발언 기회를 부여한다.
- ④ 협상자가 자신의 발언을 수정하도록 보충 질문을 제시한다.
- ⑤ 협상자에게 추후 논의할 내용을 안내하며 협상을 마무리한다.

5.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학생 1’은 상대측이 제안한 해결 방안들을 수용하며 예상되는 문제 상황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 ② [A]에서 ‘학생 2’는 앞서 언급된 상대측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 ③ [A]에서 ‘학생 2’는 상대측의 공동체 목표에 동의하며 자신의 제안이 상대측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④ [B]에서 ‘학생 1’은 특정 시기에 예상되는 문제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측에게 추가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 ⑤ [B]에서 ‘학생 2’는 상대측의 제안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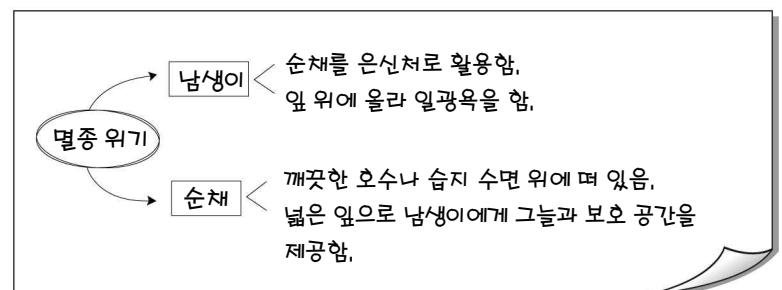
6. <보기>는 ‘학생 2’가 협상을 준비하며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가]에 제시할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자료 1] ○○마을에 설치 가능한 탐방로 유형을 정리한 표

유형	특징	습지에 미치는 영향
수면 위 고정식	탐방로가 습지 위를 가로지르도록 설치함.	탐방로와 생물 서식 공간이 가까워 수면 위 생태에 영향이 큼.
수변 고정식	탐방로를 습지 바깥쪽 지면 위에 설치함.	탐방로와 생물 서식 공간이 멀어 수면 위 생태에 영향이 작음.

[자료 2] 인터넷에서 ‘남생이’와 ‘순채’의 생태를 검색하여 정리한 메모



[자료 3] 생태 탐방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다 읽게 된 신문 기사

□□시는 생태 관광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탐방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탐방 총량제는 일일 탐방객 수를 제한해 자연 훼손을 막는 제도로,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협의해 탐방 총량제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역 생태를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탐방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① 남생이가 멸종 위기종이므로 번식기에는 탐방객의 접근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게 어떨까요?
- ② 남생이와 순채의 서식 환경 보호를 위해 마을 주민과 협의하여 하루 탐방객 수를 제한하면 어떨까요?
- ③ 탐방객이 남생이와 순채를 근접한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수면 위 고정식 탐방로를 설치하는 게 어떨까요?
- ④ 멸종 위기종인 남생이의 은신처 확보를 위해 탐방로를 지면 위에 설치하여 추가적인 보호 공간을 제공하면 어떨까요?
- ⑤ 남생이와 순채의 생태를 고려해 수변 고정식 탐방로를 설치하고 생태 가치 보존을 위해 탐방 총량제를 도입하면 어떨까요?

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음운의 변동은 크게 ‘교체, 첨가, 탈락, 축약’으로 나눌 수 있다. 한 단어를 발음할 때, 한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유형의 음운 변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자료]의 ㉠~㉣을 표준 발음으로 발음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의 유형을 설명해 보자.

[자료]

- | | |
|---------------|--------------|
| ㉠ 묻히다[무치다] | ㉡ 털양말[털량말] |
| ㉢ 급적급적[극적극적] | ㉣ 척박하다[척빠카다] |
| ㉤ 굶다랴다[국:따라타] | |

- ① ㉠에서는 탈락과 축약이 모두 일어나는군.
- ② ㉡에서는 교체와 첨가가 모두 일어나는군.
- ③ ㉢에서는 첨가와 탈락이 모두 일어나는군.
- ④ ㉣에서는 교체, 탈락, 축약이 모두 일어나는군.
- ⑤ ㉤에서는 교체, 첨가, 탈락이 모두 일어나는군.

8.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선어말 어미 ‘-는-/~ㄴ-’은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데 활용되는 대표적인 문법 요소이다. 그러나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현재 시제에 국한되지 않고, 과거에서부터 일정하게 반복되는 일이나 미래에 확실히 일어날 사건을 표현할 때 쓰이기도 한다. 또한 보편적 진리를 표현할 때나 역사적 사건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한다.

- 열차가 곧 ㉠ 도착한다.
- 물은 100℃에서 ㉡ 끓는다.
- 선수들은 조만간 훈련을 ㉢ 받는다.
- 은행나무는 매년 이맘때 노랗게 ㉣ 물든다.
- 1446년에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 반포한다.

- ① ㉠에서는 선어말 어미 ‘-ㄴ-’이 미래에 확실히 일어날 사건을 표현하는 데에 쓰였군.
- ② ㉡에서는 선어말 어미 ‘-는-’이 보편적 진리를 표현하는 데에 쓰였군.
- ③ ㉢에서는 선어말 어미 ‘-는-’이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제를 표현하는 데에 쓰였군.
- ④ ㉣에서는 선어말 어미 ‘-ㄴ-’이 과거에서부터 일정하게 반복되는 일을 표현하는 데에 쓰였군.
- ⑤ ㉤에서는 선어말 어미 ‘-ㄴ-’이 역사적 사건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데에 쓰였군.

9. <보기>는 ‘한글 맞춤법’에 관한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과 ㉡에 해당하는 단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선생님: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에 따르면,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원칙에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원칙이 붙어 있습니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 표준어의 발음 형태대로 적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형태소도 음운 환경에 따라 그 발음 형태가 몇 가지로 나타날 수 있기에 이 원칙만을 적용하여 표준어를 표기하면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또 하나의 원칙이 붙은 것입니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 ㉡ 각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말입니다.

- | | ㉠ | ㉡ |
|---|------|------|
| ① | 덧개 | 많이 |
| ② | 얼음 | 화살 |
| ③ | 개구리 | 오뎅이 |
| ④ | 이파리 | 우스개 |
| ⑤ | 어렴풋이 | 끄트머리 |

10. <보기>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그 **뻘** 仙人(선인)이 그 **썩니물 어엿비** 너겨 草衣(초의)로 슷붓고 [草衣(초의)는 프성귀 오시라] 뵈스바다가 果實(과실) 따 머겨 **기르스븡니** 나히 열네히어시닐 그 아비 스랑ㅎ야 [그 아비는 仙人(선인)을 **니르니라**] 상네 불부들 **즈비를** 시기스뻐터니
-「석보상절」 제11, 세종 29년(1447년)-

[현대어 풀이]

그때 선인이 그 따님을 가엾게 여겨 초의로 씻어 [초의는 푸성귀 옷이다] 모셔다가 과실을 따 먹여서 기르니, 나이 열넷이거늘 그 아비가 사랑하여 [그 아비는 선인을 일렀느니라] 늘 불붙일 채비를 시키어 있더니

- ① ‘뻘’을 보니, 현대 국어와 달리 어두자음군이 쓰였음을 알 수 있군.
- ② ‘어엿비’를 보니, 현대 국어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던 단어가 있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기르스븡니’를 보니, 현대 국어와 달리 ‘△’, ‘·’, ‘븡’이 표기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니르니라’를 보니, 현대 국어와 달리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군.
- ⑤ ‘썩니물’과 ‘즈비를’을 비교해 보니, 현대 국어와 달리 선행 체언의 모음에 따라 목적격 조사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군.

[11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준거가격은 어떤 제품의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외부준거가격과 ㉠ 내부준거가격으로 나눌 수 있다. 외부준거가격은 제품의 정가나 할인된 가격 등과 같이 소비자의 외부 환경에서 제공되는 가격으로, 광고나 상품에 붙은 가격표 등에 의해 소비자에게 제시된다. 내부준거가격은 소비자가 과거 경험이나 현재 구매 환경 등을 바탕으로 심리적으로 형성한 주관적 기준으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 평가가 반영되어 형성된다.

그렇다면 내부준거가격에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 평가는 어떻게 반영될까? 시장에는 대체성을 가지고 있어 비슷한 효용을 제공하지만 형태나 기능 등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존재한다. 소비자는 이 차별화된 가치에 양의 값이나 음의 값을 ㉡ 부여하며 주관적 판단에 따라 내부준거가격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돼지고기와 비교해 소고기의 맛이나 영양소가 더 뛰어나다고 판단하면 양의 차별화 가치를 부여해 소고기의 내부준거가격을 높이고, 반대로 육질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음의 차별화 가치를 적용해 내부준거가격을 낮춘다.

이러한 내부준거가격의 형성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여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관여도란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해 개인이 중요성을 ㉣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제품을 구매하는 상황이나 제품의 특성, 소비자의 흥미나 관심사 등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에 기울이는 관심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건강이나 사회적 위신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품의 가격이 비싼 경우에 소비자의 관여도가 높아진다. 이 경우 소비자는 자신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구매에 대한 의사 결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 투입하여 내부준거가격을 형성한다. 반면 구매하려는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낮으면 소비자는 제품의 차별화 가치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을 탐색하거나 대안을 생각하는 절차 등을 생략하고 이전에 형성했던 내부준거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이때 과거에 구매했던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가격이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제품의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은데, 고가의 제품이더라도 반복적으로 사용해 품질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소비자는 더 이상 정보를 탐색하지 않고 기존의 내부준거가격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나)

필요 없는 제품을 할인율이 높다는 이유로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소비 행태를 거래효용으로 설명한다. 이때 거래효용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느끼는 심리적 가치로,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예측하는 제품의 가격인 내부준거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행동경제학에서는 거래효용이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며 느끼는 가치보다 크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필요 없어도 구매하는 것을 이익으로 인식한다고 본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의 실질적인 필요 여부보다 거래 과정에서 느끼는 이득이나 손실에 더 크게 반응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효용과 관련된 소비자의 심리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대표적인 예가 회소성이나 외부준거가격을 제시하는 전략이다. 먼저 회소성 제시 전략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 한정된 시간이나 수량 등과 같은 제한된 공급 상황을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하는 전략이다. 이는 제품을 당장 구매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다. 특히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가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에 담긴 제한된 공급 상황을 신뢰할 경우, 결과적으로 제품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되면서 내부준거가격이 높아져 거래효용이 발생하게 된다. 다음으로 외부준거가격 제시 전략은 기업이 할인된 제품의 가격을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외부준거가격과 함께 제시하는 전략이다. 이는 소비자의 거래효용이 높아지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이때 기업이 제시하는 외부준거가격에는 경쟁기업의 판매가격인 경쟁 준거와 자사에서 과거에 제품을 판매했던 가격인 과거 준거가 있다. 만약 소비자가 기업에서 제시한 경쟁 준거나 과거 준거를 기준으로 자신의 내부준거가격을 형성한다면 제품의 할인된 가격에 대해 거래효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기업은 거래효용이 음의 가치로 나타나는 거래비효용도 고려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도 한다. 소비자가 외부준거가격을 신뢰하지 않거나, 오히려 속는 느낌을 받는다면 거래효용은 음의 가치를 가진다. 그래서 기업이 소비자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요가 있더라도 제품의 가격을 소비자의 내부준거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 거래비효용을 방지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인기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의 수요가 아무리 높아도 기업은 소비자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입장권의 가격을 일정 가격 이상으로 높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가격을 높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업에서 가격 인상의 이유를 소비자에게 ㉦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여 거래비효용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사용한다.

1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준거가격의 개념을, (나)는 준거가격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 ② (가)는 준거가격의 특성을, (나)는 준거가격의 등장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가)는 준거가격이 분류되는 양상을, (나)는 준거가격이 활용되는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가)는 준거가격을 기업이 이용하는 사례를, (나)는 준거가격을 소비자가 이용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준거가격과 관련하여 대립되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12.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흥미나 관심사 등에 따라 소비자의 관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
- ② 소비자는 제품에 양의 차별화 가치를 부여하여 내부준거가격을 낮춘다.
- ③ 외부준거가격은 광고나 상품에 붙은 가격표 등에 의해 소비자에게 제시된다.
- ④ 내부준거가격은 소비자가 현재 구매 환경 등을 바탕으로 심리적으로 형성한 주관적 기준이다.
- ⑤ 시장에는 대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형태나 기능 등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존재한다.

13.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으로 ㉠보다 제품의 실제 가격이 높은 경우 소비자의 ㉡은 높아진다.
 - ② 제품에 대한 ㉡이 낮은 소비자는 기존에 형성한 ㉠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 ③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이 높으면 ㉠을 형성하기 위해 제품을 탐색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
 - ④ 제품이 고가라도 그 제품에 대한 ㉡이 낮은 소비자는 품질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기존의 ㉠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 ⑤ 제품이 자신의 사회적 위신에 영향을 미칠 경우 소비자는 ㉡이 높아져 구매 결정까지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을 형성한다.

14.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나)를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작성해 봅시다.

질문 1

행동경제학에서는 필요 없는 제품을 할인율이 높다는 이유로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소비 행태를 어떻게 설명할까?

•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며 느끼는 가치보다 거래효용이 커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이익으로 인식한 것으로 설명한다. ①

질문 2

소비자가 거래 과정에서 이득을 느끼게 유도하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까?

• 제품 구매 시 시간이나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제품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하는 전략이 있다. ②

• 제품의 할인된 가격의 비교 대상으로 경쟁 기업의 판매가격이나 과거 자사의 제품 판매가격을 함께 제시하는 전략이 있다. ③

질문 3

초과 수요가 있는 인기 차종이라도 기업이 자동차의 가격을 일정 가격 이상으로 인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 소비자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④

•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거래효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⑤

15. (가)와 (나)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갑은 외투를 구매하기 위해 여러 매장을 둘러보았다. 갑은 외투 가격이 부담되어 많은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제품을 비교해 보았다. 외투 A와 외투 B는 모두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지만, 외투 A에 비해 외투 B는 보온성이 떨어져 아쉬웠다. 그런데 외투 B의 가격표에서 기존에 판매했던 가격과 함께 제시된 20% 할인된 가격을 보고 외투 B를 구매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갑은 외투 B가 예약된 상품이라 구매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웬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속상해졌다. 매장을 나오다가 진열대에 있는 양말이 과거 구매했던 가격과 같아 특별한 고민 없이 구매했다.

- ① 갑은 외투 B의 보온성에 음의 차별화 가치를 부여했겠군.
- ② 갑이 본 외투 B의 가격표에는 과거 준거와 할인된 가격이 모두 제시되어 있군.
- ③ 갑이 외투 B의 구매가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은 외부준거가격을 내부준거가격으로 형성하여 거래효용이 발생했기 때문이겠군.
- ④ 갑이 외투 B를 구매하지 못해 속상해진 것은 할인된 가격보다 내부준거가격이 높아져 거래비효용이 발생했기 때문이겠군.
- ⑤ 갑은 양말 구매 시 차별화 가치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겠군.

16. ㉠~㉣의 문맥상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양이나 음의 값을 ‘다른 곳으로 옮기며’라는 의미이다.
- ② ㉡: 개인이 중요성을 ‘깨닫는’이라는 의미이다.
- ③ ㉢: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라는 의미이다.
- ④ ㉣: 시간이나 수량이 ‘제한되어 정해진’이라는 의미이다.
- ⑤ ㉤: 소비자에게 하는 설명이 ‘명백하고 확실히’라는 의미이다.

- [17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는 철학자 사르트르의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관점을 잘 보여 준다. 그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본질이나 역할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겼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항상 어떤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지향성을 지닌다. 그래서 인간은 현실의 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통해 현실의 대상, 나아가 현재의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사르트르는 인간이 어떻게 의식을 통해 현실을 초월할 수 있다고 보았을까? 그는 그 해답을 ‘무화’와 ‘상상’이라는 의식의 작용에서 찾는다. 먼저, 무화란 의식이 어떤 대상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사물이나 상태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거리를 둠으로써 다른 가능성을 여는 활동을 뜻한다. 인간은 이러한 무화를 통해 현실에 ‘있는 것’을 부정하고 자신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현실에 ‘있지 않은 것’을 새롭게 지향할 대상으로 정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 현실에 ‘있지 않은 것’을 떠올리는 것이 ‘상상’이다. 상상은 단순한 환상과 달리, 현실을 무화함으로써 새로운 비실재적 대상을 창조하는 능동적인 의식의 활동이다. 가령, 눈앞의 ‘사과’를 보고 그것의 ‘빨간색’이나 ‘둥근 모양’을 지각한다고 하자. 우리의 의식은 사과의 보이는 모습 그 자체나 사과에 대해 가졌던 생각을 무화함으로써 사과의 내부가 비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탐욕’, ‘유혹’과 같은 새로운 상(像)을 떠올리는 상상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사과를 관찰하고 있는 나’를 무화하고 ‘사과를 좋아하는 나’를 상상함으로써 현재의 자신도 초월할 수 있다.

사르트르는 이러한 무화와 상상이 예술의 창작과 감상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예술가들은 무화와 상상을 통해 현실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그 너머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예를 들어, 화가가 눈앞에 있는 사과를 보고, 새롭게 상상한 색과 형태로 그것을 그렸다고 하자. 이 그림은 현실의 사과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의식이 새롭게 지향하는 대상을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예술가의 의식이 지향하는 대상은 구체적인 물질적 기반을 통해 비실재적 대상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사르트르는 이러한 물질적 기반을 ‘아날로공’이라고 명명하였다. 아날로공은 그림의 캔버스나 물감, 음악의 선율처럼 상상한 결과를 지각 가능한 형태로 드러내는 유사 표상물로, 상상이 현실의 제약을 넘어 가능성의 세계를 펼치도록 돕는 매개체이다. 즉, 아날로공은 비실재적 대상을 감각적 경험 속에서 현전하게 만드는 상상의 외적 지지대라 할 수 있다.

예술 감상 역시 예외는 아니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감상자는 예술 작품을 단순한 물질적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성을 초월한 대상을 상상하게 된다. 그는 감상자의 무화와 상상의 결과로 탄생하는 그 대상이 바로 미학적 대상이라고 보았다. 사르트르는 감상이 의식을 통해 작품과 감상자 자신을 초월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감상자를 작품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의미를 창조하는 자’로 보았으며, 예술 작품은 감상자의 무화와 상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사르트르의 예술 철학에서 창작과 감상은 모두 인간 의식의 무화와 상상을 바탕으로 한 실존적 활동이다. 예술가는 현실을 무화하고 상상을 통해 그것을 재구성함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실현하고, 감상자는 작품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그 의미를 스스로 구성하며 자유로운 상상의 주체가 된다. 결국 사르트르에게 ㉠ ‘예술은 자유로운 인간이 세계에 던지는 물음이자 응답’인 것이다.

1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인간의 역할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 ② 인간은 환상을 통해 현재의 자신을 무화할 수 있다.
- ③ 예술가는 현실의 모방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 ④ 예술 감상과 달리 예술 창작은 의식의 실존적 활동에 해당한다.
- ⑤ 아날로공은 실재하지 않는 대상을 감각 경험 속에서 현전하게 만든다.

1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체가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다.
- ② 비실재적 대상을 창조하는 활동을 한다.
- ③ 인간이 자기 자신을 초월할 수 있게 한다.
- ④ 항상 어떤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지향성을 지닌다.
- ⑤ 현실의 사물이나 상태를 부정하거나 거리를 두게 작용한다.

19.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본질이 실존의 목적이 됨을 뜻하며, ㉡은 예술이 실존의 수단이 됨을 뜻한다.
- ② ㉠은 개인이 자유를 추구함을 드러내며, ㉡은 예술 감상이 보편적이어야 함을 드러낸다.
- ③ ㉠은 본질에 따라 실존이 구성됨을 의미하며, ㉡은 자유로운 의식의 활동에 따라 예술이 구현됨을 의미한다.
- ④ ㉠은 인간이 사회적 역할에 따라 자신을 규정함을 나타내며, ㉡은 예술이 사회적 질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함을 나타낸다.
- ⑤ ㉠은 인간이 스스로를 구성해 가는 존재임을 강조하며, ㉡은 예술이 인간의 무화와 상상을 통해 세계를 구성해 가는 실존적 활동임을 강조한다.

20.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조각가 A는 ‘현대인의 고통’이라는 주제에 적합한 소재를 고민하다 손목 위 시계를 보고 생각에 빠졌다. 시각을 알려 주는 편의 장치로 여겼었던 시계가 현대인들을 시간에 종속시키는 구속 장치로 작동하는 모습이 불현듯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래서 그는 부서진 시계 위에 청동을 덧입힌 작품 「시계」를 완성해 전시했다. 작품을 본 관객 B는 사라진 역사의 허망함을 떠올렸고 관객 C는 시간의 유한성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자신을 연상했다.

- ① A는 ‘시각을 알려 주는 편의 장치’를 무화하고, ‘시간에 종속시키는 구속 장치’를 새롭게 지향할 대상으로 정립했겠군.
- ② B는 작품 ‘시계’의 물질성을 초월한 ‘사라진 역사의 허망함’을 무화했겠군.
- ③ C가 연상한 ‘시간의 유한성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자신’은 미학적 대상에 해당하겠군.
- ④ B와 C는 각각 작품 ‘시계’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그 의미를 능동적으로 창조했겠군.
- ⑤ 작품 ‘시계’의 ‘부서진 시계’와 덧입힌 ‘청동’은 상상한 결과를 지각 가능한 형태로 드러내는 유사 표상물이겠군.

[21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는 ㉠ 특정 기체를 선택적으로 감지하는 데에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적외선은 일정한 주기로 진동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파동의 성질을 지닌 전자기파로, 적외선에는 약 0.7마이크로미터에서 1,000마이크로미터에 이르는 다양한 파장이 포함된다. 파장은 파동이 한 번 진동할 때 이동한 거리로, 진동 중심에서 가장 높은 위치인 마루와 그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마루의 높이와 파동의 에너지는 비례하며, 파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적외선 세기의 변화량은 비례한다. 이러한 적외선의 특징과 기체 분자가 적외선을 흡수하는 흡광 원리에 기반하여,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는 적외선의 세기 변화량에 따른 특정 기체의 농도를 측정한다. 이 기기는 광원 램프, 가스 셀, 광학 필터, 감지기로 구성되며, 흡수 과정과 검출 과정 순으로 작동한다.

흡수 과정은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기체 분자에 선택적으로 흡수되는 과정이다. 먼저 기기에 전원이 공급되면 광원 램프에서 적외선이 방출되어 가스 셀 내부로 들어간다. 가스 셀은 광원 램프와 광학 필터 사이에 설치된 관으로, 그 내부에는 측정 대상을 포함한 기체 분자들이 들어 있다. 기체 분자는 두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들의 결합 상태에 따라 고유한 진동수를 지닌 진동 운동을 한다. 이때 가스 셀에 들어온 적외선 중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진동수가 일치하는 기체 분자를 만나면, 해당 적외선이 지닌 파동 에너지는 분자 내부의 진동 에너지로 흡수된다. 이로 인해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기체 분자의 양에 비례하여 파동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기체 분자에 흡수되지 않은 다른 파장의 적외선들과 함께 광학 필터로 들어간다.

검출 과정은 광학 필터를 이용하여 기체 분자에 반응하는 특정 파장의 적외선만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킨 후, 기체의 농도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광학 필터는 두 개의 반사체 사이에 공진층을 배치한 구조이며, 반사체는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가진 박막을 겹겹이 붙여 만든 것이다. 이 구조는 적외선이 박막과 박막의 경계면에서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되어 박막을 투과하는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반사체를 구성하는 박막의 굴절률과 두께를 정밀하게 계산하면 특정 파장의 적외선만 광학 필터를 통과시킬 수 있다.

가스 셀에서 광학 필터로 들어온 다양한 파장의 적외선이 첫 번째 반사체를 투과할 때, 일부 파장의 적외선은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되어 공진층으로 투과된다. 이때 공진층 내부로 들어온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첫 번째 반사체와 두 번째 반사체 사이에서 반사되며 공진층 내부를 왕복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파동의 마루와 마루가 일치하는 위치에서 서로 만나 중첩되면서 마루의 높이가 커지게 된다. 그 결과, 파동 에너지가 강화된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두 번째 반사체까지 투과하며 광학 필터를 나와 감지기에 도달하게 된다. 반면, 특정 파장 외의 적외선은 첫 번째 반사체를 투과하여 공진층에 도달하더라도 파동 간의 마루 위치가 일치하지 않아 상쇄되거나 반사되어 필터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후 감지기에서는 감지기에 도달한 특정 파장의 적외선 세기와 가스 셀 내부에 측정 대상 기체가 없을 때의 기준값을 비교하여 기체의 농도를 측정한다.

21.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반사체를 구성하는 박막의 소재는 무엇인가?
- ② 적외선에 포함되는 파장의 범위는 무엇인가?
- ③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 ④ 파동의 마루와 적외선의 세기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⑤ 광학 필터의 구조는 적외선의 어떤 특성과 관계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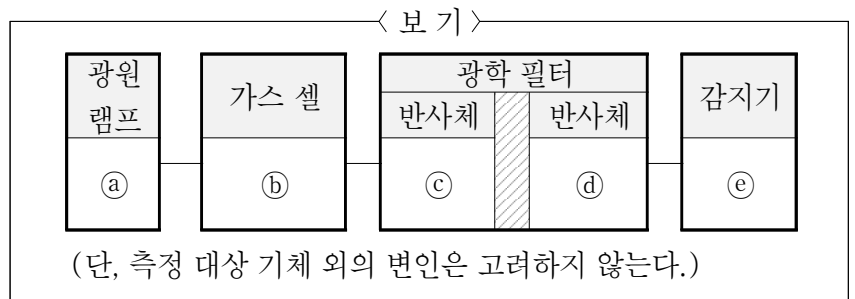
22.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체 분자 내부의 진동 에너지는 특정 파장의 적외선에 흡수되기 때문이다.
- ② 기체 분자의 진동 운동은 적외선의 진동수와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이다.
- ③ 기체 분자의 진동수가 적외선의 세기에 비례하여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 ④ 기체 분자가 적외선의 다양한 파장 중 진동수가 동일한 파장만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 ⑤ 적외선이 진동하는 주기를 변화시켜서 기체 분자 내 원자의 결합 상태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23. <보기>는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의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서 방출될 때와 c로 들어갈 때의 파동 에너지가 같은 적외선은 e에서 감지되지 않겠군.
- ② a에서 방출된 적외선 중 일부만 c에서 감지되었다면 b에서 기체 분자의 진동 에너지는 감소했겠군.
- ③ b에서 파동 에너지가 감소한 적외선은 c와 d 사이에서 파동 에너지가 증가하겠군.
- ④ b에 들어 있는 기체 분자의 양이 많아질수록 e에서 감지되는 적외선의 세기는 작아지겠군.
- ⑤ b에서 기체 분자에 반응한 적외선은 c에서 나올 때보다 d로 들어갈 때 파동 에너지가 더 크겠군.

[24 ~ 27] (가)와 (나)는 학생이 읽은 글이고, (다)는 이를 바탕으로 쓴 논증하는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기술이 끊임없이 개발되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 결정론과 사회적 구성론이라는 두 가지 대표적인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관점 모두 기술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 방식에 대한 해석은 서로 다르다.

기술 결정론은 기술이 사회나 문화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전하며, 기술을 사회 전반의 구조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기술이 사회를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가령, 스마트폰의 개발이 언제 어디서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정보 유통과 여론 형성 방식은 물론 사회 전반의 소통 문화를 변화시켰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 결정론은 사회적 맥락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동일한 기술도 사회 문화적 요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사회적 구성론이다.

사회적 구성론은 사회 집단 간의 해석과 협상을 통해 기술에 의미가 부여되고 기술의 발전 방향이 결정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자전거는 초기에 속도를 추구하던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앞바퀴가 큰 형태로 설계되었지만 다양한 집단의 요구가 반영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실용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기술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고 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 준다.

(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정책을 결정할 때 정부나 전문가 중심의 의사 결정만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어렵다. 문제를 한쪽 관점에서 정의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은 갈등을 심화시키고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어떤 입장에 놓일지 모른다는 전제 아래, 이해관계의 유불리를 떠나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을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복지나 환경처럼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영역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더욱 요구된다.

공정한 기준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시민, 민간단체 등 정책의 영향을 받는 다양한 주체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등장한 개념이 참여적 거버넌스이다. 참여적 거버넌스는 관련자의 의견 수렴부터 정보 제공, 공동 설계, 실행 후 피드백까지 포함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을 만든다.

또한 참여적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조율함으로써 특정 소수의 이익 편향을 방지하고, 정책의 수용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 요양 시설의 돌봄 로봇 도입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나는 돌봄 로봇을 도입하는 데 찬성한다.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돌봄 로봇의 도입은 이해관계를 넘어 모두

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공정한 기준에 따른 선택이기 때문이다.

우선, 돌봄 로봇은 기초적인 돌봄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약 복용 시간 알림, 응급 호출 기능 등은 사람이 곁에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수단이 된다. 외국 대학 병원의 요양 시설에서 시범 운영된 돌봄 로봇은 낙상 사고 감지율을 높이는 등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돌봄 로봇은 편의성이 뛰어나다. 초기에는 조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용자 중심의 기술이 적극 반영되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인식 기능, 자동 동선 탐지 기능 등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A] 물론, 돌봄 로봇은 사람의 정서적 돌봄을 대체할 수 없다고 반대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의 요구가 반영된 현재 돌봄 기능은 우울 수치를 약 30% 이상 낮춘 것은 물론, 정서적 안정감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돌봄 로봇은 사회적 필요와 다양한 주체의 요구 속에서 발전해 온 결과이다. 이러한 기술의 도입은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24. 다음은 학생이 글을 읽는 과정에서 작성한 질문이다. (가), (나)에서 답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가)와 관련하여,

-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두 관점의 공통된 입장은 무엇일까? ①
- 기술이 다양한 사회 집단 간의 해석과 협상을 통해 발전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②

(나)와 관련하여,

- 참여적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은 무엇일까? ③
- 참여적 거버넌스의 기대 효과는 무엇일까? ④
- 참여적 거버넌스의 현실적 한계는 무엇일까? ⑤

25. (다)를 작성하기 위해 (가), (나)를 읽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기술 결정론의 입장에 주목하여 기술이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② (가)에서 사회적 구성론이 나타나게 된 원인에 주목하여 사회적 맥락에 따라 기술이 구성되고 조정된다는 점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③ (가)에서 사회적 구성론에 대한 비판점에 주목하여 스마트폰의 개발과 같이 기술 수용의 결과가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④ (나)에서 공정한 기준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함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⑤ (나)에서 참여적 거버넌스의 개념에 주목하여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대변해야 정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읽었다.

26. 다음은 수업 중 교사의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를 작성하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논증하는 글을 쓸 때는 우선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설명하는 이유가 필요하죠.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설득력이 높아져요. 독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반박까지 포함하면 글의 구조는 더욱 탄탄해 집니다.

- ① 요양 시설에 돌봄 로봇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성 입장을 주장으로 제시한다.
- ②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돌봄 로봇의 도입은 공정한 기준에 따른 선택이라는 내용을 이유로 제시한다.
- ③ 돌봄 로봇의 사용자 인식 기능을 조작하는 방법을 설명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한다.
- ④ 돌봄 로봇의 도입이 인간의 정서적 돌봄을 대체할 수 없다는 내용을 예상 반론으로 제시한다.
- ⑤ 돌봄 로봇의 현재 돌봄 기능이 정서적 안정감을 향상시켰다는 내용을 반박으로 제시한다.

27. <보기>는 (다)를 작성한 후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보기>를 (가), (나)와 연결 지어 (다)의 [A]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정책을 결정할 때, 설문 조사나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양적 평가는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여 비교하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참여자의 경험과 같은 맥락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민 인터뷰나 현장 관찰 등의 질적 평가를 함께 활용하여 양적 평가의 한계를 보완한다면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더욱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다.

— ○○ 학회 논문 자료 —

- ① <보기>를 (가)와 연결 지어, 다양한 기술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고 설문 조사를 통해 돌봄 로봇의 안전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반박을 구체화해야겠어.
- ② <보기>를 (가)와 연결 지어, 문화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발전한 기술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여 비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반박을 구체화해야겠어.
- ③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어려움을 제시하고 전문가 위주의 견해를 정책 결정에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반박을 구체화해야겠어.
- ④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받는 주체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함을 제시하고 돌봄 기능에 대한 평가에 사용자의 경험을 관찰한 자료가 함께 반영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반박을 구체화해야겠어.
- ⑤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정책 결정의 목적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것임을 제시하고 통계 자료와 같이 사회적 맥락을 놓칠 수 있는 양적 평가 대신 질적 평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반박을 구체화해야겠어.

[28 ~ 30] 다음은 작문 상황과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밤하늘 사색 프로그램에 다녀와서 기록한 [메모]를 바탕으로 수필을 작성하여 학교 신문에 실으려 함.

○초고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 부모님을 마주하는 것이 힘들어 상담실을 찾았다. 상담 선생님께서는 밤하늘 사색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셨고, 마침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첫 번째 코스는 실내 전시관에서 해설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것이었다. 선생님께서는 이 지역이 밤하늘 보호 구역으로 인공 조명이 없는 청정 구역이기에 육안으로 별을 볼 수 있다고 하셨다. 그런데 별의 밝기에도 등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이 심란해졌다. 그 밝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마치 별에 대한 평가처럼 느껴졌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별빛들이 지금의 나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마음 때문이었는지 두 번째 코스인 어둠 속 산책로 체험은 유독 기억에 남았다. 어둠 속에서 불안해진 나는 밤하늘의 별을 응시하며 호흡을 가다듬고 걷기 시작했다. 이내 마음이 편해지자 거짓말처럼 희미한 별이 시야에 들어왔다. 동시에 바람의 청량한 감촉, 풀벌레 소리, 향긋한 풀 내음이 느껴졌다. 어둠이 두려웠던 나는 밝은 별을 찾기 바빴다. 하지만 여유를 찾은 후에는 시각의 틀에서 벗어나 여러 감각을 섬세하게 느꼈고, 희미하게나마 자기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지만 눈에 띄지 않았던 별빛을 마주할 수 있었다. 나 역시 그 별과 같이 지금 이 자리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결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산책로 끝의 언덕을 올라 마지막 코스인 전망대로 향했다. 특별한 장비 없이 눈으로 밤하늘의 별을 보는데, 별빛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준다는 해설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윤동주의 시 ‘별 헤는 밤’이 생각났다. 화자가 별을 보며 추억을 생각한 것처럼 나도 별 하나하나에 나를 응원해 주었던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렇게 캄캄했던 밤하늘은 어느새 새벽이 되면서 오묘한 빛깔이 감돌기 시작했고 점점 별빛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렇지만 하늘의 색이 변하는 동안에도 그 자리에서 빛나는 별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웃는 얼굴로 나의 내일을, 가족들을 마주해야 한다고.

체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전과는 달라졌다. 물론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하면 실망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웃는 얼굴로 가족들을 마주할 수 있다. 나 같은 경험이 있는 친구들에게 더 이상 평가나 기준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28. ‘초고’의 글쓰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문단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기를 상담 선생님의 말을 인용하여 서술하였다.
- ② 2문단에서는 밤하늘 보호 구역이 줄어드는 이유를 인과의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 ③ 3문단에서는 어둠 속 산책로 체험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 ④ 4문단에서는 밤하늘의 상태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였다.
- ⑤ 5문단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해 느낀 점을 다른 친구들과의 대비를 통해 서술하였다.

29. 다음은 [메모]의 일부이다. ㉠ ~ ㉣이 ‘초고’에 반영되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코스

- 육안으로 별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
- 별의 밝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 ㉡
- ↳ 내 얘기 같아서 마음이 심란해졌어.

2코스

- 어둠 속 산책로에서 느꼈던 감각들이 여전히 생생함. ... ㉢
- 눈에 띄지 않았던 별빛을 마주한 순간이 떠올랐음. ㉣

3코스

- 별빛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준다고 함.
- ↳ 시 ‘별 헤는 밤’이 떠올랐어. ㉤

- ① ㉠을 반영하여, 밤하늘 보호 구역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별을 볼 수 있는 이유를 밝혔다.
- ② ㉡을 반영하여, 별의 밝기 등급을 나누는 기준을 정리하여 추가하였다.
- ③ ㉢을 반영하여, 어둠 속 산책로에서 느꼈던 감각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제시하였다.
- ④ ㉣을 반영하여, 별빛을 보며 떠올린 나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였다.
- ⑤ ㉤을 반영하여, 전망대에서 밤하늘을 보며 떠오른 생각을 시의 화자의 생각과 연결 지어 언급하였다.

30. <보기>를 반영하여 ‘초고’의 제목을 작성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경험의 의미를 드러내며 비유적 표현을 활용할 것.
- 경험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드러낼 것.

- ① 밤하늘의 별을 보는 나
- ② 밤하늘에 갇힌 별과 꿈
- ③ 별자리 관찰, 전시관에서 전망대까지
- ④ 별처럼 빛나는 나를 찾은, 밤하늘 사색 체험
- ⑤ 어둠 속 감각 체험, 다시 찾은 어둠 속 산책로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날 공의 부자가 대궐에서 숙직하는지라, 소저가 흥미한 정신을 수습하여 누웠더니 비몽사몽 중에 한 부인이 구름 같은 치마에 안개 같은 옷을 입고 손에 자줏빛 부채를 쥐고 표연히 들어와 곁에 앉으니, 좋은 향기가 가득하고 상서로운 기운이 자욱한지라. 소저가 황홀하고 괴이하여 급히 몸을 일으켜 절하며 예를 갖추니, 그 부인이 혼연히 소저의 머리를 어루만져 슬퍼하여 왈, “옥윤아, 네 이제 나를 아느냐? 나는 너의 어머니라. 너희 남매가 강보에 싸여 있을 적에 세상을 버리매 나의 면목을 모르리라. 내 어둔 하늘에서 슬퍼함을 마지 아니하더니, 이제 간인이 흉악한 재앙을 빚어내매 너의 남매 보전하지 못하게 되

[A] 며 가문의 위태함이 누란(累卵) 같아 집을 붙들이 네 손에 있거늘, 네 죽어 어찌 부모와 조상을 저버리고자 하나뇨? 우리 문중의 참화는 운명이니 내 구하지 못하거니와 너를 구한즉 가히 온 집안을 구하여 회복할지라. 진원대선(眞元大仙)께 청하여 너를 데리러 왔으니, 너는 바빠 대선을 따라 재앙을 피하라.”

소저가 어머니를 붙들고 크게 슬퍼 흐느껴 말을 이루지 못하니, 부인이 다정히 어루만지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 모두 너의 운명이요 하늘이 정한 운수니 차마 어찌하리오? 내 아이는 본래 통달하여 대의를 알지라. 그저 슬퍼 말고 보신 지책을 생각하라. 몸을 마쳐 후사를 없게 함이 대의 아니니라. 진원자는 본래 네 스승이니 **좃아감이 훌륭한 대책**이라. 모름지기 나아가고 일시도 머물지 말라.”

소저가 슬피 울며 대답하기를, “소녀의 갖가지 슬픔은 이르지 말고 일신을 보전하매 절개를 세우지 못할 것이오니 살아 있음이 부질없고 죽음이 마땅한지

[B] 라. 부득이 죽을 마음을 먹었더니 모친의 가르침을 받자옵거니와 소녀가 백화를 보호하지 못하면 가문의 대가 끊어지니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소녀를 도와 백화를 무사하게 하옵소서.”

부인이 응낙하고 소매에서 환약을 내어 소저를 먹이고 일어나매 문득 오색구름이 흩어져 다시 보지 못하니, 흐릿한 중에 놀라 깨달으매 한순간 꿈이라. 혀를 물어 상한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더라. 이에 좌우를 살피니, 희미해진 촛불이 미미한데 주 씨는 깊이 잠들었고, 시종들이 연달아 밤을 새웠는지라 다 곤하여 자거늘, 소저가 생각하되, ‘**꿈속의 일을 믿을 바 아니로되, 돌아가신 어머니의 밝은 가르침이 마땅하사 조금도 희미하지 않고 또한 약을 먹여 허가 나온 것을 보건대 가히 거짓으로 알지 못할지라. 내 이제 달리 죽으매 부모가 주신 몸을 상하게 함이 더욱 죄 되니 차라리 몸을 깊은 물에 잠기게 하여 형체 온전히 함이 상책이라.**’ 하고 즉시 의상을 정돈하고 고쳐 생각하되, ‘내 이제 죽으매 그 성명을 신변에 지녀 돌아가 의탁을 삼으리라.’하고 드디어 혼서와 옥가락지를 내어 몸에 품고 가만히 후문을 나서 몸을 수중에 던지니 홀연 공중에서 황룡이 내려와 소저를 태워 공중으로 오르니, 정신이 당황하더니, 한 곳에 이르러 몸을 내려놓으매 눈을 들어보니, 서역 땅 ‘곤륜산 제삼봉 진원 법선관’이라 하였더라.

한 도사가 이르되, “네 일찍 시서를 두루 읽어 식견이 높고 사물에 밝으니 내 말이 허탄함을 괴히 여기려니와 대강을 이르나니, 너는 전생에 내 으뜸 제자 ‘화선’이라. 내 너를 데리고 상제께 조회하니, 옥제 너의 아름다운 용모를 사랑하사 이에 광한전(廣寒殿)에서 가까이 모시게 하실새, 문곡성(文曲星)과 일찍이 바둑 두어 그 재주를 보실새, 문곡성이 매화선(梅花仙)과 사귀어 깊고 두텁

더니 바둑으로 승부를 다투며 서로 회통하여 왈, ‘우리 서로의 마음이 이토록 가까우니 인간에 한가지로 하강하여 부부가 되어 보면 즐거우리로다.’ 매화선이 웃으며 말하기를, ‘그런즉 그대는 남자가 되고 나는 여자가 되어 서로 만남이 가하리라.’ ‘그대 용모가 매우 아름답고 고우니 내 아내를 삼고자 하노라.’ 옥제 들으시고 저의 인간 세상에 대한 생각이 동함에 노하사 인간으로 귀양 보내시니 서로 남녀를 다투는 고로 ‘바둑을 두어 승부를 결정하라’ 하시니, 문곡성은 남자가 되고 매화선은 하가의 여자가 되니, 옥제가 두 사람의 사랑에 놀라시어 그 인연이 멀게 하시고 반평생을 가난과 고생을 겪게 하나 채주와 성품이 출중하여 하늘을 감동하게 하므로 문곡은 입신양명하여 왕후장상의 부귀를 누리게 하시고, 너는 비록 **이번 세상에 여자이나 전생의 몸이 남자라**, 공명을 이뤄 천하에 횡행하여 지기를 펴게 하시니, 네 모친 윤 씨 천궁에 즐거우시나 한결같이 너를 잊지 못하여 내게 구함을 청할 뿐 아니라 잠깐 신선의 소질이 있는 고로 금일 구하여 돌아왔나니, 네 다시 인간 세상에 뜻이 있어 머물지 않고 바빠 돌아가고자 하느냐?”

소저가 환히 깨달아 삼가 감사하며 말하기를,
“저는 미숙한 속세의 사람으로 인간 세상에 묻혀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부모 잃은 슬픔을 품어 슬픔을 참고 부친의 자애하심을 의지하여 지내옵더니 천만뜻밖에 **형제끼리 서로 해치는 변고**를 당하여 차마 인세에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할 마음이 없어 일신을 수중에 던져 **깨끗이 귀신이 되고자 하였**더니, 이제 선생의 **큰 은혜를 입어 남은 목숨을 구하여** 살려 주시고 거두심을 연사오니, 어찌 다시 흥진에 나감을 생각하오며 영화와 치욕에 관계하고자 하리이까마는 가문이 불행하여 형제가 인의를 몰라 바르지 않은 길에 들어 권력을 탐하고 세력을 즐기니 머지않아 큰 화를 만나 일가가 패망하고 노부(老父)가 나라에 충성을 다하여 섬기다가 자식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몸을 보전하지 못할까 근심하옵나니, 엿드려 바라건대 노선(老仙)은 대자대비하사 노부의 목숨을 보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사가 왈,
“네 사정이 그러한즉 네 무예를 배웠다가 나라에 변이 있거든 공과 업적을 세워 명성을 드높이고 이름을 천하에 알리며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 노부를 영화 부귀로 섬기게 하리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무예와 도술을 익힌 하옥윤은 세속으로 돌아와 남장을 하고 장원에 급제한다.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자 옥윤은 원수가 되어 군대를 이끌고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출전한다.

익일에 양 진영이 전쟁할새 천진(天陳)의 문이 열리는 곳에 용봉일월기와 황금 도끼가 좌우로 둘렀고 붉은 일산(日傘)이 부치는 곳에 무수한 갑옷 입은 군사가 한 수레를 밀어 나오니, 이는 하원수라. 머리에 윤건을 쓰고 몸에 학창의를 입고 허리에 사마대를 두르고 손에 백우선을 들었으니 백설 같은 피부와 달빛같이 상서로운 기운이 백일(白日)에 밝게 빛나니, 모든 장수들이 태을선군이 하강하였다 하더라.

호룡이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중국에 인재 없음을 알 수 있도다. 저 어린아이로 대장을 삼아 보내어 감히 나를 항거하리오?”
하고 웃기를 마지않더라.

하원수가 크게 노하여 친히 창을 빼어 들고 말을 달려 바로 호룡을 취하여 서로 **무기를 부딪치고 몇 번 지나지 않아** 원수의 칼이 빛나며 **호룡의 머리가** 말 아래에 내려지니, 남은 무리가 다

항복하거늘 원수가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겨 위로하니 모든 백성이 춤추며 기뻐 승복하더라.

—작자 미상, 「하진양문록」—

3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옥윤은 자신의 몸이 회복된 것을 보고 어머니를 만난 일이 거짓이 아니라고 믿었다.
- ② 옥윤은 자신이 지닌 혼서와 옥가락지를 후문에 던졌다.
- ③ 옥제가 문곡성에게 매화선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명했다.
- ④ 진원자는 서둘러 인간 세상으로 가지 않는 옥윤을 꾸짖었다.
- ⑤ 호룡은 하원수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위축된 태도를 보였다.

32.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모친은 옥윤을 구하고자 하는 진원대선의 의도를 알려 주고 있다.
- ② [B]에서 옥윤은 자신이 죽음을 피하고 신체를 보전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 ③ [A]에서 모친은 옥윤이 시련을 겪어야 하는 정당성을, [B]에서 옥윤은 모친이 시련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 ④ [A]에서 모친은 옥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만류하는 이유를, [B]에서 옥윤은 모친이 자신을 도와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⑤ [A]에서 모친은 사물에 빗대어 가문의 위기 상황을 강조하고, [B]에서 옥윤은 상황을 가정하여 가문의 위기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하진양문록」에서 신념을 지키기 위한 여성 인물의 선택은 선계의 개입으로 극적 효과를 얻는다. 선계의 조력자들은 비현실적 방법을 통해 인물에게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하거나, 인물을 위기의 순간에서 구출한다. 또한 전생의 정보나 가문을 보전할 능력을 지닐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선계의 개입은 인물이 새로운 역할을 자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영웅적 면모를 드러내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①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옥윤에게 진원자를 ‘쫓아감이 훌륭한 대책’이라고 알려 주는 데서, 선계의 조력자가 인물에게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도사가 옥윤에게 ‘이번 세상에 여자이나 전생의 몸이 남자’라고 하는 데서, 선계의 조력자가 인물에게 제공한 전생의 정보를 알 수 있군.
- ③ 옥윤이 도사에게 ‘형제끼리 서로 해치는 변고’ 때문에 ‘깨끗이 귀신이 되고자 하였’다고 하는 데서, 선계의 조력자에 의해 인물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도사를 만난 옥윤이 자신이 ‘큰 은혜를 입어 남은 목숨을 구하’였다고 하는 데서, 인물이 선계의 조력자에 의해 위기의 순간에서 구출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⑤ 하원수가 ‘무기를 부딪치고 몇 번 지나지 않아서’ ‘호룡의 머리’를 베고 백성을 위로하는 데서, 인물이 가지고 있는 영웅적 면모를 드러냄을 알 수 있군.

[34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천하의 사람들을 사민(四民)에 나누시니
학문을 하게 되면 입신양명 하려니와
농사는 본업(本業)이라 양사부육(仰事俯育)* 하리로다
인명(人命)이 지중하고 하늘이 만들었으니
천민(天民)이 되어 나서 본업을 아니하라
뜰에 봄이 들고 화풍이 훈훈하거든
쟁기를 손수 들고 서직(黍稷)*을 갈아 심어
화기(和氣)에 숨을 띄워서 비이슬에 자랐거든 [A]
일찍 일어나 호미 메고 남쪽 밭에 돌아가서
잡풀을 다 갈아서 기운차게 흥성하거든

(중략)

청주를 맑게 빔고 자성*을 갖춘 후에
선조께 제사하며 처자식 거느리고

배불리 먹으리라

내 몸에 욕이 없고 남의 밭을 아니 빌면
인간에 나왔다가 홀홀히 돌아간들 [B]
부양(俯仰) 천지간의 무슨 한이 또 있으리

예부터 성현네도 농업을 먼저 하니
대순은 성인으로 역산에 가 밭을 갈고
후직은 농사 되어 경종(耕種)*을 힘쓰시니 [C]
신야 이윤이와 남양 제갈량이

한가히 녀름지어 농상(農桑)을 일삼으니
세상의 중한 일이 이 밖에 또 있을까
금은이 귀하여도 기갈(飢渴)을 못 살리고 [D]
옥백이 보배라도 흉년에 쓸데없다

항산(恒産)*이 없는 후에 선심(善心)인들 어찌 나리
가색(稼穡)의 간난(艱難)*을 글마다 이르시니
주공의 ㉠ 칠월시(七月詩)는 그 중에 간절하니
웁으며 노래 불러 뉘 아니 감동하리

어와 아이들아 자세히 들어보라
성인(聖人)도 저러하니 그 아니 어려우나 [E]
우부(愚夫)도 다 알거든 그 아니 쉬웁텐가
아침에 밭을 갈고 밤이거든 글을 읽어

충효를 본을 삼고 구족(九族)이 화목하거든
월삭(月朔)의 회음(會飲)*하며 낙세(樂歲)로 누리다가
공명(功名)을 못 이룰지라도 격양가로 늠으리라

—김기홍, 「농부사」—

- * 양사부육: 아버이를 섬기고 처자식을 보살핌.
- * 서직: 기장과 피를 아울러 이르는 말.
- * 자성: 나라의 큰 제사에 쓰는 기장과 피를 이르는 말.
- * 경종: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림.
- * 항산: 살아갈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
- * 가색의 간난: 농사일의 힘들.
- * 회음: 모여서 술을 마심.

(나)

온돌방을 마주한 곳에 상인들이 무리지어 쉬고 있었는데, 밤이 깊어지자 한 상인이 술에 취해 말하는 소리가 제법 오래 들렸으나 나는 알아듣지 못했다. 『사기(史記)』 ㉡ 「백이전(伯夷傳)」으로 끝마쳤는데, 한 번 소리 내 읽을 적에 음절이 유려하고 구두를 떼는 것이 분명하였다. 「백이전」의 “암혈지사(巖穴之士)가 세상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에는 때가 있다. 이러한 부류의 이름이 민멸

되어 일컬어지지 않으니 슬프구나. 여항(閭巷)의 사람이 품행을 갈고 닦아 이름을 드날리고자 한다면, 청운지사(靑雲之士)에 의탁하지 않고서 어떻게 후세에 이름을 전할 수 있겠는가.”라는 구절에 이르러서는, 어조가 격렬하고 오열하여 거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하였다. 그러다 다시 말소리가 처량해져 마치 비파를 타고 차가운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하였다. 놀라고 의아하여 급히 일어나 쫓아가 보니, 다만 쭉대머리를 한 객 네 명만이 고요하게 있었다. 누가 읽었냐고 묻자, 방금 전에 「백이전」을 읽은 사람이 말했다.

“접니다. 저는 진안(鎭安)에 사는 박(朴)씨 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름과 문벌(門閥)은 말하지 않겠사오나, 현재는 **체를 만들어 파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꾸짖으며 말했다.

“그대는 분명 사대부의 후예로 지기(志氣)가 있고 글을 잘 지을 것이요. 진실로 가난을 근심한다면, 어찌 굶어서 먹고살 방도를 체를 만들어 파는 데서 찾는단 말이요?”

그러자 객은 안색이 변해 오랫동안 있다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저는 과거시험에 이미 여러 번 떨어졌는데, **아버이는 늙어가고 아이는 또 성장하니**, 과거를 그만두지 않으면 끝내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을 듯했습니다. 또 생각건대, 지금 사람이 세상에 쓰일 적에, 풍년을 만나도 힘써 받을 갈지 못하고 예장(豫樟)같은 좋은 재목도 끝내 들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체게 힘이 없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어, 경쟁하지 않는 길에 스스로를 맡겼습니다. 먹고살 방도는 또한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쌓인 채로 있지 않고 반드시 남에게 전부 취해지는 것은 오직 상인뿐이요, 거친 것이 정밀한 것을 가리지 못하여 항상 가짜 재료가 와서 섞이지 않는 것은 오직 체뿐입니다. 이 때문에 기꺼이 천한 이름을 자처하여 이익이 작은 것을 따지지 않고 이 일에 종사한 지 이미 십 년이 되었습니다. 무릇 벼슬은 먹고살 방도 중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요, 문학(文學)은 벼슬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계책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힘이 있는 자가 종사해야, 작은 이익을 구하는 자들을 굴복시키고 줄렬한 계책을 쓰는 자들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공론이 모두 **벼슬한 자들**에게서 나왔는데, 스스로 바르다고 하면서 **남을 잡스럽다**고 하고 스스로 귀하다고 하면서 남을 천시했으니, 그 외 사람들은 또한 머리를 조아리고 수용하여 끝내 감히 언성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선비님도 나를 잡스럽고 천하다고 꾸짖는 것일 뿐입니다. 실상을 따져 보면, **체를 만드는 것과 글을 짓는 것**은 천한 재료를 쓰느냐 귀한 재료를 쓰느냐의 차이만 있고, 시장에서 먹고사는 것과 녹을 받아 먹고사는 것은 **소득이 많느냐 적으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큰 이익을 위해 좋은 계책을 쓰는 것은 다름이 없는 것만 못하므로,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다.

“그대의 말을 통달하였네. 그런데 그대 또한 글을 지을 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일세. 글을 지을 줄 몰랐다면 이런 깨달음도 없었을 것이요, 깨달음이 없다면 천할 뿐이니, 문학을 비루한 일이라 무시해야 되겠는가?”

그러자 객이 눈썹을 치켜올리고 불끈 주먹을 쥐고서 세 번 일어섰다 다시 앉았다 하며 말했다.

(중략)

“많이 알면서 글을 잘 짓는 자의 경우엔, 항상 **무형(無形)의 형벌**이 온몸에 내려지고 무근(無根)의 불꽃이 그 내장을 태우게

되니, 이것이 선비님과 제가 모두 불행한 까닭입니다. 저는 여
기서 벗어나, 점차 만년에는 구애되는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비님은 아직도 깊이 빠져 있어, 겉으로는 담론을 크게
퍼지만 속에는 근심이 쌓였으니, 매우 슬프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제 말은 격렬하여 후세에 전할 수 없으니, 선비님은
듣기만 하소서.”

나는 그 사람을 기이하게 여기고 그의 논의를 슬프게 여겨, 전
하지 말라는 경계를 따르지 않고 이 기(記)를 쓴다.

—유희, 「판가점우사상기」—

34.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인법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언어유희를 통해 현실에 대한 태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직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 ⑤ 계절의 순환이 드러나는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이 처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35. [A] ~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농사일과 관련된 기구를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농사의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B]: 자립적인 삶을 실현한 상황을 가정하여 농사짓는 삶의 만족
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C]: 농사에 먼저 종사한 성현들의 사례를 열거하여 농업 기술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D]: 부귀와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여 기근을 겪는 상황에서 농사가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임을 강조하고 있다.
- ⑤ [E]: 능력이 다른 인물을 대비하여 농사가 처지의 구분 없이 하는
일임을 드러내고 있다.

36. 다음은 학생이 (나)를 읽고 작성한 감상문의 일부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늘은 수업 시간에 「판가점우사상기」를 읽었는데, 글쓴이인 ‘나’가
체 장수와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만남, 문답, 기록’의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글쓴이는 깊은 밤, ㉠ 책을 걱정
적으로 낭독하는 목소리를 듣고 그 인물을 찾아간다. 낭독한 인물이
체를 만들어 파는 장사꾼임을 알게 되자, ㉡ 생계를 위해 그러한 일
을 선택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질문을 던진다. 이에 체
장수는 자신의 상황과 판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반론하고, 글
쓴이는 ㉢ 그가 그러한 사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비루한 일을 하
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응수한다. 이어지는 문답 속에서 체 장수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글쓴이는 ㉣ 그를 기이하게 여기며 그의
말에서 슬픔을 느낀다. 결국 ㉤ 체 장수가 기록을 삼가 달라고 당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남과 대화를 글로 남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7.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고, ㉢은 글쓴이가
상대의 처지를 짐작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 ② ㉠은 화자가 누구든 공감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고, ㉢은 글쓴이가 누군가에게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 ③ ㉠은 화자가 자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괴로움을 드러내는
것이고, ㉢은 글쓴이가 타인이 겪은 육체적 고통에 공감하게 하는
것이다.
- ④ ㉠은 화자가 선택한 삶의 방식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은
글쓴이가 자신이 추구하던 삶의 방식을 포기한 이유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⑤ ㉠은 화자가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적 문제를 표현하는, ㉢은
글쓴이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결연한 선택을 강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38.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와 (나)는 모두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생업에 대한 사대부
의 현실 인식이 나타난다. 작품에서의 노동은 생존을 도모하는
수단이며, 작품 속 화자나 인물은 당대 변화된 사대부의 삶의 가치
를 드러낸다. (가)는 생업을 운명으로 여기는 작가의 관점을 바탕
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화자를 설정하여 유교적 덕목을 실현하는
삶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나)는 문학과 유교적 가치에 대한 회의
적인 입장에서 생업에 대한 경험적 진술을 제시하는 사대부 인물
을 등장시켜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 ① (가)의 ‘인명’은 ‘하늘이 만’드니 ‘천민이 되어 나서 본업’을 해야
한다는 것에서 운명론적 관점으로 생업을 바라보는 사대부의 모습
을 엿볼 수 있군.
- ② (나)의 ‘벼슬한 자들’이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는 달리 ‘남을 잡스
럽다고’ 한다는 것에서 당대의 현실을 부조리한 사회로 바라보는
사대부의 관점을 엿볼 수 있군.
- ③ (가)의 ‘농사’로 ‘처자식’과 ‘배불리 먹’겠다는 것과, (나)의 ‘체를
만들어 파는 일’이 ‘아버이’와 ‘아이’의 ‘추위와 배고픔’ 때문이라는
것에서 사대부가 가족의 생존을 위하여 노동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군.
- ④ (가)의 ‘밤이거든 글을 읽어’ ‘충효를 본을 삼’는다는 것에서 유교
적 덕목을 중시하는 삶에 대한, (나)의 ‘무형의 형벌’에서 ‘벗어나’
‘구애되는 바가 없게 되었’다는 것에서 유교적 명분에 얽매이지
않는 삶에 대한 사대부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⑤ (가)의 ‘항산’이 있어야 ‘선심’이 나온다는 것에서 생업을 도덕적 삶
의 실천을 위한 전제로 보는, (나)의 ‘체를 만드는 것과 글을 짓는
것’은 ‘재료’와 ‘소득’의 ‘차이만 있’다는 것에서 문학을 생업을 비
판하기 위한 도구로 보는 사대부의 현실 인식을 엿볼 수 있군.

[39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혹 말이다, 혹 어떤 친구네가 못살게 돼서 집 같은 걸 팔긴다 치자. 그런 경우 넌 그걸 팔겠니 안 팔겠니?”

한영은 대변 할아버지의 심중을 알 수 있었으나 잠자코 있었다.

“혹 말이다, 남이 그런 경우에 집을 팔았다고 허문 넌 어떻게 생각하겠니? 잘한 일이라구 생각하겠니? 잘못된 일이라구 생각하겠니?”

한영은 할아버지가 바라는 대답이 뻔했으나 역시 아무 말 않고 있었다.

“니까짓게 뭘 알겠다고. 묻는 내가 틀렸지!” 두식 영감은 잠시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너 어서 쌀 두어 말 퍼 가지구 가서 개네 빚진 돈이 얼마구, 변린 얼마구, 갚을 날잔 은젠지 소상히 알아 갖구 오너라.”

아만 생각해 봐도 그 집을 탄 사람한테 넘어가게 하느니보다는 내가 맡는 편이 나을 거다. 내가 뭐 집이 탐나서 차지하려는 건가, 개 사정 봐서 맡는 거니 누가 뭐탈라고? 그리고 그 구렁이 같은 김 주사가 아무리 담보물은 자깃거로 만들지 않는 다지만 이번엔 이문이 많이 붙을 것 같으니까 빚을 못 갚으면 못 건디는 척 자기 차지로 할 게 뻔해. 그럴 바에야 내가 맡는 게 도리지, 도리고 말고. 아마 지하의 재담 영감도 잘한 처사라고 할 거라.

두식 영감은 돋보기를 끼고 신문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한영이 돌아올 때까지 줄곧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춘길이한테 다녀온 한영에게서 빚진 돈은 60만 원이고, 5푼 5리 이자에 반제 날짜는 이달 열아흐렛날이라는 보고를 받는다.

“쓸개 빠진 놈 같으니라구, 많이두 내 췌군! 그러구 뭐 변리가 5부 5리라구? 거, 장릿변 찜 쪼 먹게 비싸군. 그런 변리를 물구 뭘 어떻게 감당해 나간다는 거야! 허긴 비싸구 어찌구 할 것 없이 변리처럼 무서운 건 세상에 읍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어만 가게 마련인 걸. 너두 명심해라. 넌 그런 일이 읍겠지 만 변리 무섭다는 걸 마음에 꼭 새겨 뒀야 해! 알겠냐? 그래 이달 열아흐렛날이 한이라구?”

“네. 두 달 기한으루 빌렸답니다. 제대루 이자를 몰 가망이 보였 다면 기한을 연기받았을는지 모르지만요.”

“오늘이 메칠날이드라?”

“열엿썩니다.”

“사흘 남았군. 비싼 변리 사흘씩이나 몰 필요 읍지. 오늘 당장 갚 두룩 해. 설마 김 주사가 제날짜에 가서야 받겠대군 앓을 테지.”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그래? 공일 날이든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읍겠군. 널 갚는 걸 루치구 썩을 해 봐. 변리가 얼마나 나가는지.”

“이자 계산만 하면 됩니까?”

“변리 말구 뭐가 또 있단 말이나?”

“저.....”

한영은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마른침을 삼킨다.

“저 어쨌단 말야?”

㉠ “저..... 춘길이한테두 얼마 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춘길이한테 얼마 떨어져야 허다니?”

㉡ “돈 한 푼 없이 당장 어떻게 살아갑니까? 집두 읍이.”

“그럼 우리가 맥여 살리기라두 해야 한다는 거냐? 개한테 돈 한 푼 읍는 건 당연해! ㉢ 그래 가지구 돈이 붙어 있겠니? 재물은 영물이야! 사람을 보구 붙어 있기도 허구 달아나 버리기두 허는 거야!”

㉣ “앞으루 움막이라두 우리구 좌판 장사라두 할 밑천이 있어 야겠대던데요.”

“아냐! 좌판 장사구 뭐구 이젠 이 고장에선 못 살아! 무슨 낫 짝을 들구 예서 산단 말이나!”

“어쨌든 얼마만큼 돈을 바래서 할아버질 찾아뵈 게 아니겠습니까?”

㉤ 집 넘어가는 거야 그냥 내버려둬두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이놈 봐라, 제법 의견 같은 걸 다 말하네. 두식 영감은 좀 늘어진 왼쪽 눈꺼풀을 더 내리덮으며 잠시 궁리에 빠진다. 그랬다가,

“대체 그 집값이 얼마나 나간다고 보냐?”

거기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할아버지 자신이 잘 알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하며 한영은,

“글쎄요, 서둘지 앓구 느긋이 작자만 만나면 백사오십만 원은 넉넉히 받지 않겠습니까?”

“뭐라구? 정신 나간 소리 작작해! 넌 무에나 해프게 생각해서 탈야! 잘 받는대야 백만 원 안짜야! 안짜이라두 한참 안짜이지!”

두식 영감이 잠시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암튼 그건 개 할아비를 생각해서 내 알아 할 테니 여러 소리 말구 어서 변리가 얼마 나가는지 썩이나 해 봐!”

[중략 부분의 줄거리] 한영이 죽고 한영의 동생 한수마저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지자 두식 영감은 노망해 버린다. 한수의 병원비를 충당하고자 한영 아버지는 봉룡이를 통해 두식 영감의 토지를 팔기로 결정한다.

강 사장은 봉룡의 얘기를 들어 가며 부산히 속으로 ㉠ 주관알을 튕기고 있었다. 봉룡이 이처럼 유난히 떠벌리는 걸 보니 저쪽에서 이만저만 다급한 게 아닌 것은 분명해 조금만 더 버티면 아주 싼 값으로도 후려칠 수 있을 것 같은 해답은 쉽게 나왔다. 시계포를 판다지만 하루이틀에 작자가 나설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러다가 빼앗하는 날엔 나만 또 애먹게 되는 거다. 어디까지나 송 회장 일인테 내가 이 이상 속을 태울 필요가 뭐가. 그동안의 중간보고도 대충만 했을 뿐 자세한 보고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뤄 온 것도 문제의 이 땅 때문이 아니었던가. 강 사장은 밀져야 본전이다 싶으면서,

“머, 먼저 매긴 값으론 아, 안 되겠어요. 아, 아무래두 말이 새 나가게 될 거구 그, 그렇게 되든 너두나두 떼들을 쓸 텐데 그, 그걸 무슨 수루 막아요. 그, 그러니 논보다 천 원 아랫값으루 떼, 떼내 보시요.”

“뭐라구요?”

사정이 달라졌다고 하나 이럴 수가 있나? 저쪽에서 달라는 가격 다 주고 사들이라던 때가 언젠데? 이런 판국에 최고 매매 가격에다 5백 원을 더 얹으랴던 건호의 말은 아예 비취 볼 길조차 없었다.

“그건 좀 너무하신데요.” 봉룡은 난감했다. 고수머리 뒤통수를 북적북적 긁으며 난색을 보이다가,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 5백원 귀 떼두룩 해 보죠. 없는 집 팔아서 채워 오드라두 내 한번 해 볼 테니 계약금 쥐 보세요!”

강 사장은 의자 등에 몸을 기대고 고개를 뒤로 젖힌 채 한참을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조, 좋소. 내 이 씨 봐서 야, 양보하지.”

금고에서 내어 주는 돈을 받아 갖고 나와 건호네 집으로 가는 봉룡의 걸음은 아까와는 달리 더디었다. 야, 강 사장이란 작자 변한 꼴 무섭네. 최 영감만 전 같았으면 어렵도 없었을 텐데. 역시 극성이네 뭐네 해도 최 영감이 그 집의 대들보였어.

한영 아버지와 건호는 봉룡의 말을 듣고 어안이 병병해졌다. 건호가 한영 아버지를 건너다본다. 한영 아버지는 눈을 밑으로 떨

구고 잠잠히 있다.

“그새 이쪽 사정을 알아 났군요.” 건호가 한영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미 이쪽의 **약점을 잡혔으니 별수 없**겠습니다.”

“자네 생각대루 하계.” 한영 아버지는 **토지 문서와 인장**을 내놓는다. 토지 문서와 인장은 부친이 방바닥에 널어 놓고 있는 걸 집어 온 것이다. “글쎄 그 등등했던 양반이 이걸 갖구 오는데두 멍청히 보구만 계시드라구.” 한영 아버지의 말소리는 떨리듯 침통하게 울렸다.

—황순원, 「신들의 주사위」—

39.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인물의 시선을 중심으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인물의 내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중심인물의 행동을 제시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여 인물의 상반된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중심인물의 외양적 특징을 묘사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4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에 드러난 바람이 상대에게 수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말이다.
- ② ㉢은 ㉠에 담긴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한 말이다.
- ③ ㉢은 ㉠에 담긴 문제 상황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속내가 담겨 있는 말이다.
- ④ ㉣은 ㉠에 나타난 의문이 해결될 수 있음을 통해 상대를 안심시키는 말이다.
- ⑤ ㉣은 ㉡에 드러난 입장에 덧붙여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말이다.

41.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기적인 손익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를 위한 최적의 방법을 탐색하고 있음을 뜻한다.
- ② 자신에게 돌아올 손익을 따져 보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생각하고 있음을 뜻한다.
- ③ 이미 발생한 손익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닥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음을 뜻한다.
- ④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익까지 고려하여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뜻한다.
- ⑤ 불확실한 손익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음을 뜻한다.

42. 다음은 윗글을 읽고 진행한 교과 융합 수업의 <학습 활동>이다. <학습 활동>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다음은 ‘산업화에 따른 농촌 사회의 변화’에 관한 글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상을 정리해 보자.

1970년대 산업화를 통한 한국의 경제 성장 이면에는 농촌 사회의 구조적 붕괴가 있었다. 우선 농촌 내부에서는 고리대금으로 자본을 축적한 소자본가들에 의해 공동체의 균열이 초래되었다. 이들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농민에 경제적 우위를 점하였고, 공동체로서의 유대감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구성원들의 신뢰 관계는 와해되었다. 한편 도시 자본의 유입이 중개인을 통해 가속화되어 농촌의 토지는 혈값에 계약되었고, 농촌 소자본가는 자본의 논리만을 따르는 도시 자본의 거래 조건에 예속되는 등 도시 자본의 하부 기제로 전락하였다.

- ① 두식 영감이 ‘5부 5리’의 ‘장릿변 찜 쪼 먹게 비’싼 ‘변리’를 물지 못한 춘길이를 언급한 것에서, 고리대금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농민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두식 영감이 ‘변리가 얼마나 나가는지’만 관심을 보이며 춘길이가 ‘돈 한 푼’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 것에서, 이익을 우선시하는 농촌 소자본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춘길이가 ‘얼마만큼 돈을 바래서’ 두식 영감을 ‘찾아뵈 게 아니겠’냐고 한영이 말한 것에서, 신뢰 관계가 무너진 농촌 구성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강 사장이 두식 영감네의 사정을 듣고 땅을 ‘아주 싼값으로도 후려 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것에서, 농촌의 토지가 자본의 논리에서만 평가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강 사장에게 ‘약점을 잡’혀 ‘별수 없’이 한영 아버지가 두식 영감의 ‘토지 문서와 인장’을 내놓는 것에서, 도시 자본의 거래 조건에 매인 농촌 소자본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에서 자연 현상은 이미지화되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적 소재로 기능한다. 자연 현상을 이미지화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는 자연 현상에 대한 화자의 경험을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 현상을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같은 추상적 관념이 투영된 이미지로 재구성하기도 한다. 이때 자연 현상의 이미지들은 시적 장면 속에서 서로 연결되면서 운동성이나 방향성이 상반된 이미지로 전환되거나 대비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 시적 장면을 강조하는 표현과 함께 화자의 심리 변화나 내적 사유를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나)

㉔ 처서* 가까운 이 깊은 밤
천지를 울리던 우레소리들도 이젠
마치 우리들의 이마에 땀방울이 겹히듯
먼 산맥의 등성이를 넘어가나보다.

역시 나는 자정을 넘어
이 새벽의 나른한 시간까지는
고단한 꿈길을 참고 견뎌야만
처음으로 **가을이 이 땅을 찾아오는**
별레 설레이는 소리라도 듣게 되나보다.

어떤 것은 명주실같이 빛나는 시름을,
어떤 것은 재깍재깍 녹슨 가윗소리로,
어떤 것은 또 얹은 거미줄에라도 걸려
파닥거리는 시늉으로
들리게 마련이지만,
그것들은 벌써 어떤 곳에서는 깊은 우물을 이루기도 하고
손이 시릴 만큼 차가운 개울물 소리를
이루기도 했다.

처서 가까운 이 깊은 밤
나는 아직은 깨어 있다가
저 우레소리가 산맥을 넘고, 설레이는 **별레소리**가
강으로라도, 바다로라도, **다 흐르고 말면**
그 맑은 아침에 **비로소 잠이 들겠다**.

세상이 유리잔같이 맑은
그 가을의 아침에 비로소
나는 잠이 들겠다.

* 처서: 24절기의 하나. 더위가 수그러지기 시작하는 시기.
-박성룡, 「처서기」-

(다)

바람의 따뜻한 허가
사알짝, 우듬지에 닿기만 해도
깡변*의 미루나무 그 **이파리들**
짜갈짜갈 소리날 듯
온통 **보석조각으로 반짝이더니**

바람의 싸늘한 손이
썩 썩잉, **싸대기를 후리자**
깡변의 미루나무 그 **이파리들**
후둑후둑둑 굵은 눈물방울로
온통 **강물에 쏟아지나니**

온몸이 떨리는 **황홀**과
온몸이 떨리는 **매정함 사이**
그러나 **미루나무는**
그 **키 한두 자쯤이나 더 키우고**
몸피 두세 치나 더 불린 채

㉕ 이제는 바람도 무심한 어느날
저 강 끝으로 정정한 눈빛도 주거니

애증의 이파리 모두 떨구고
이제는 제 고독의 자리에 서서
남빛 하늘로 고개 들 줄도 알거니

* 깡변: '강변'의 방언.
-고재중, 「성숙」-

43. ㉔을 중심으로 (나),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다)는 수미상관의 형식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다)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모두 감탄사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모두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44. ㉔, 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㉔와 ㉕는 모두 화자가 대상이 지닌 문제점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 ② ㉔와 ㉕는 모두 화자가 대상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 ③ ㉔는 화자와 대상 간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㉕는 멀어지는 시간이다.
 - ④ ㉔는 화자가 대상의 변화를 지각하는, ㉕는 화자가 대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시간이다.
 - ⑤ ㉔는 화자가 대상으로 인해 외적 갈등을 일으키는, ㉕는 화자가 대상으로 인해 내적 갈등을 겪는 시간이다.

45. (가)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에서 '가을이 이 땅을 찾아오는 별레 설레이는 소리'는 자연 현상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청각적 이미지로 형상화된 것이겠군.
 - ② (다)에서 '황홀'과 '매정함 사이'에서 '키 한두 자쯤이나 더 키우고 몸피 두세 치나 더 불린' '미루나무'는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나무의 생장에 투영된 것이겠군.
 - ③ (다)에서 '애증의 이파리 모두 떨구고', '남빛 하늘로 고개 들 줄도 알거니'는 나무의 하강 이미지와 상승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삶에 대한 화자의 내적 사유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④ (나)에서 '손이 시릴 만큼 차가운 개울물 소리'는 촉각과 청각으로, (다)에서 '싸대기를 후리'는 '바람의 싸늘한 손'은 시각과 촉각으로 이미지화된 자연 현상을 통해 화자의 인식을 구체화한 것이겠군.
 - ⑤ (나)에서 '나'가 '별레소리'가 '다 흐르고 말면' '비로소 잠이 들겠다'라고, (다)에서 '이파리들'이 '보석조각으로 반짝이더니' '강물에 쏟아지나니'라고 한 것은 정적 이미지를 동적 이미지로 전환하여 화자의 심리 변화를 드러낸 것이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